

■환경부, '환경복지' 실행 구체적 계획 인수위 보고

4대강 수질·생태계만 언급... 보 안전성은 빠져

“장점 위주 보고... 책임 벗어나려는 꿈수”

환경부는 새정부 들어서도 그동안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복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갖고 박근혜 당선인의 '환경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은 환경분야 공약으로 장외영향평가제와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 등을 통해 환경재해의 예방 대책을 제도화하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물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선진국 수준의 환경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인수위 법철서 사회안전분과가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업무경과를 설명하면서 '환경복지'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관련, 객관적인 수질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4대강 수질은 사업 초기에 세운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와 관련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연 관돼 있는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한 채 보 안전성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아 “4대강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꿈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보고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한 보고서 내용은 10여페이지 내외로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 안전성 문제는 국토해양부 소관”이라며 “환경부는 수질과 수생태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꾸민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 분과위원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과고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 수문. (광주일보 자료사진)

며 “환경부는 수질과 수생태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꾸민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 분과위원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과고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관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

졌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다목적 기상 항공기 도입 문제와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인력 충원 문제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외곽순환도로, 호남~제주 해저터널, 광주~완도 고속도로

환경단체 “대통령 인수위 건의 토건사업 반대”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한 3개의 토건사업은 제외돼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호남-제주 KTX 해저터널 개발사업,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대해 “도시확장이 가속화되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생태계 파괴, 농촌 경관의 파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인 이 추진 중인 KTX 해저터널에 대해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 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친환경적 협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와 전문가에 따르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광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주기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나왔다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배출경로 프로그램 공개

기후변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나 학생들도 자신만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경로 분석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대 기후변화센터가 영국 기후변화에너지부(DEC)의 프로그램을 국내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개발해 최근 무료 공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문가

용 프로그램에 비해 간단해, 누구나 웹사이트(2050.sejong.ac.kr)에 들어가 산업·가정·교통 등의 에너지 수요 부문,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의 에너지 공급 부문, 토지 축산 폐기물 등의 비에너지 부문과 에너지 안보 부문 등 40개 부분의 부분별 감축 노력 수준을 4단계 가운데 하나씩 선택하기만 하면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그려볼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랑이 없는 생태계 담비가 최고 포식자

2~3마리 집단공격... 멧돼지 등 대형포유류 제어

호랑이는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에서 오랫동안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동물원을 제외하면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지금 동물의 '제왕'은 누구일까.

몸길이가 길어야 60cm 안팎에 불과한 담비가 호랑이의 뒤를 이어 남한 야생에서 최상위 포식자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4년 동안 무선 위치추적, 무인 카메라, 배설물 등을 이용한 먹이 분석 등의 방법으로 담비의 행동권과 먹이습성을 연구해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담비가 남긴 배설물 414점을 분석한 결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대형 포유류가 전체 먹이의 8.5%를 차지했다. 이들을 비롯해 청설보·다람쥐·멧돼지·두더지·말벌 등 동물성 먹이가 50.6%, 사

래·버찌·머루·감 등 식물성은 49.4% 인 것으로 분석됐다.

2~3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는 담비는 한 무리가 고라니나 멧돼지를 연 건 9마리, 청설보는 75마리가랑 잡아먹는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추정했다.

자그마한 체구의 담비가 대형 포유류도 제압할 수 있는 이유는 단독 생활을 하는 다른 맹수들과 달리 2~3마리가 역할을 분담해 '과사공격'을 퍼는데다 용맹성도 타고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비가 모이면 호랑이도 잡는다'는 옛말대로다.

최태영 환경과학원 연구사는 “사체나 발자국 정황을 보면 담비는 맹수처럼 습성을 한 번에 끊지는 못하지만 여러 마리가 올라타 어지거기를 물어뜯어 상대를 쓰러뜨린다”고 전했다. 생태계의 조정자로서 담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먹이가 다양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담비가 즐겨 먹는 멧돼지나 고라니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야생동물이다. 청설보는 잣·호두·밤 등 고소득 견과류에, 말벌은 양봉에 타격을 준다.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 피해를 줄이는 '활용까지'도 있다는 것이다. 환경과학원은 담비의 행동권이 22.3~59.1km에 달할 정도로 넓어 생태계의 '우산종'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우산종은 행동권이 넓고 먹이 피라미드에서 꼭대기에 있는 종을 말한다. 우산종을 보호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종들을 함께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담비는 어미에게서 독립할 때 40km 이상의 먼 거리를 이동해 생태통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담비의 행동권과 먹이습성을 연구한 결과 담비가 남한 야생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무인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담비.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조성, 생태축 복원 등 보전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연철스

수은, 바다 배출 100년새 2배

해양 오염 심각... 건강·환경 위험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은 수백이 바다로 배출, 수은 오염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육지에서 바다로 배출된 수은의 양이 100년 사이 전 지구적으로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독성 금속인 수은은 공기, 물, 흙 등에 있는 천연 물질이다. 수은은 화학 물질 생산이나 금 등의 소규모 채굴 작업에서 널리 사용된다. 또한 전자제품 폐기물에서 배출되기도 하며 인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UNEP는 수은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수은 노출과 관련된 건강과 환경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경우 소규모 금 채굴과 전역 생산을 위

한 석탄 연소로 인해 수은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아시아는 전 세계 수은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UN-EP는 덧붙였다.

이 같은 보고서는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수은 관련 협약 체결을 위한 '제5차 정부간합성위원회'를 앞두고 발표했다.

UNEP는 수은 오염 완화를 위해선 국제 사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슈타이너 사무국장은 새로운 오염이 “지구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슈타이너 사무국장은 새로운 기술이 수은 노출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연철스

광주천 살리기 실천 YMCA 'EM휴공단지기'

광주YWCA가 지난해에 이어 EM 휴공 단지기를 진행했다.

광주YWCA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 광주천 일대에서 회원·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천 살리기 EM 휴공 단지기를 행사를 진행했다.

새해를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1시간 여 동안 광주천에 일대를 돌며 EM 휴공을 뿌렸다.

한편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인간에게 유용한 미생물을 복합 배양해 만든 물질을 말하며 하천 수질정화와 빨래·청소 등 실생활에 다양도로 사용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reas including Daejeon, Gwangju, and Jeonju. Includes categories like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금당 공인중개사', '신한공인중개사', '초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and '대인동삼일부동산'. Each ad lists services, contact info, and property details.